

# 해외전법·학문교류 교두보

## 조계종 어학학교 설립·유학승 파견의미

스님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전문 특수학교 설립은 한국불교의 세계화뿐만 아니라 40여년만의 영원을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외국어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한국 불교가 국제무대에 나서기 시작한 50년대부터 제기되었다. 국제불교대회에 참석하였으나 언어소통이 안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온 경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스님들에게 외국어는 물론 고등교육에 대한 열기가 일어났다. 그러나 당시에는 개인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해 종단차원의 본격적인 외국어교육이 실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사 주지인 녹원스님이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장이라는 이점을 활용해 교수진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그리고 직지사가 연수원을 운영하며 교육·수련도량으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 어학학교 설립사찰로 최선의 요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스크리트 및 불어전공 유학승 파견은 한역경전에 의존했던 불교학과 불교전반에 새로운 문화적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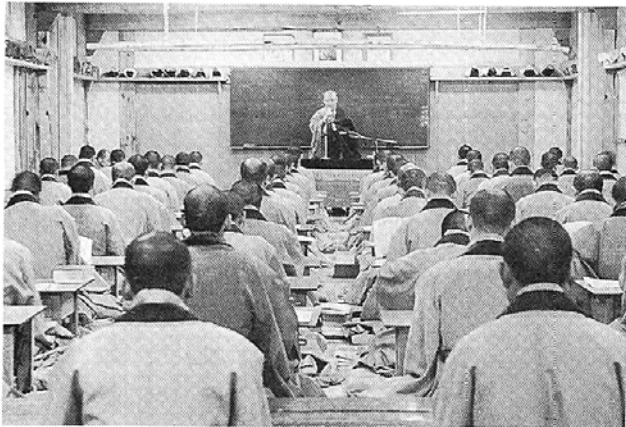
종양승가대 객원교수 김명준(산스크리트어 전공)은 "부처님의 원음을 들을 수 있는 열쇠는 산스크리트어와 불어"라며 두 언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하고 유학승 파견조치를 환영했다. 김교수는 또 "단순히 산스크리트와 불어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고대경전 역사 철학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를 연구하는 것이기에 영어를 비롯한 기본적인 어학실력과 배움의 태도를 지닌 승려들을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내연구인력을 활용해 산스크리트 및 불어 경전 번역 및 보급을 담당할 연구소 설립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학승을 파견할 인도 부나대학은 학부 4년,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4년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사과정 이후에는 브라흐만으로부터 도제식수업을 받는 아짜리야(Acarya.대선사)과정으로 이어진다.

정성운 기자

## 외국어가능 인력 확보 불교세계화 촉진 빨리어등 전공자양성 불교학 발전 기대



스님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특수학교가 설립된다. 사진은 승가대학 강의모습.

교육원이 어학학교 설립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한국불교의 미래상 확립을 위해 어학인력 확보가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개설한 교역자양성 전문학림인 승가대학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된 데 따른 자신감도 한몫했다.

교육부장 항적스님은 "외국어는 해외 및 국내거주 외국인교회는 물론 선진 불교학 및 불교계의 움직임을 직수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불교 발전의 일부분을 담당한다. 선진불교학 및 외국불교계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통로가 1차적으로는 언어이기 때문"이라며 외국어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원은 이미 입학대상자 파악에 들어갔으며, 어학학교 설립을 위해 필요하다면 추경예산도 편성할 것이라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어학학교를 직지사에 설립키로 한 것은 교역연계가 좋은 뿐만 아니라 직

## 교육원 새해사업

### 행자교육원상설등 5대목표 추진 비구니학림 개설·학적 전산화

조계종교육원은 새해사업 목표를 '교육제도의 정착'에 두고 △상설 기초교육원 준비 △기본교육의 정착 △학림의 확충 △본말사주지제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 실시 △교육행정의 체계화를 5대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사업 내용을 정리한다.

**기초교육원 상설화 추진** 그동안 밤어사 봉토사 등에서 시행해오던 기초교육원(행자교육원) 상설화를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 98년에 개설토록 할 계획이다. 습의교안 통일, 현재 6개월의 교육기간을 1~2년으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교육기관 정착** 기초선원 운영과 함께 교육원이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다. 종단의 공식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키 위해 교역자 위상 및 대우를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 검인정 교재 및 교안 통일, 전등을 살리면서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교과목의 개설과 교수방법의 보완, 학인의 학습여건 개선도 주요한 내용으로 추진된다.

**학림의 확충** 교학의 균형 발전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인 학림의 추가 설립을 적극 유도하고, 비구니 학림을 설립할 계획이다. 비구니학림은 올해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에 개설할 예정이다. 현재 운문사가 준비중이다. 이와함께 용원을 종단의 공식적인 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잡도록 교육내용을 보완한다.

어학학교 등 특수학교 설립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백담사 만해문화학교, 직지사 어학학교를 특수학교로 인정해 불교전통문화와 어학인력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원은 이와함께 교육행정의 체계화를 위해 3천여명에 이르는 학인들의 학적을 9월까지 전산입력할 계획이다. 또 본말사 주지스님과 국장급 소임자, 교역적 중무임 등 계층별 직능별 연수 및 재교육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불학연구소(소장 밀원)는 강원백서 발간(4월), 승가대학 교과과정 및 각국 승가교육 방법 연구, 세계 승가의 수행체계와 소의경전 심포지움 및 자료집 발간 등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운)

## 시론

### '진퇴양난' 푸는 슬기

과업정국이 심상찮다. 정부여당조차도 내부적인 의견 충돌이 있고 위기를 느끼는 듯 비쳐지기 시작했다. '진퇴양난(進退兩難)'이란 말이 의미 있게 들린다. 안기부법과 노동법의 기습처리 개악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엄청난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연일 개악된 관계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노동계는 총파업으로 대응하고 정부는 공권력으로 이에 맞서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뾰족한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앞장서서 충분한 여론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야당이나 노동계와의 대화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여당의 총재이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이들 대표들과 마음의 문을 열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해야 한다. 각계각층에서 들려오는 '문민독재'라는 목소리를 잠재우고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 때문에 들을 돌리는 국민들의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고뇌할 때이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라. 이렇게 정국을 뒤엎고 있는 안기부법, 노동법의 개정엔 두가지 문제로 요약된다. 첫째는 절차적인 하자로 구할 26일 새벽 신한국당에 의해 주도된 '날치기' 통과 문제이다. 외국인론들도 일제히 '문민 날치기'를 비난하고 한국 민주화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보도하고 있음에도 주목해야 한다.

### 대화속에 해법 있다

각계 각층이 노동계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학계·종교계·문화예술계 지도자들은 사태의 중대성을 지적하며 정부·여당의 수습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날치기 처리된 안기부법·노동법의 철회를 요구하는 법학계와 노동계의 규탄성명에 이어, 각계각층의 의사표현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안기부법은 과거 독재정권 아래서 악용되던 '독소조항'들이 다시 들어갔기 때문이다. 찬양고무죄와 불교지죄수사권이 다시 안기부로 돌아감으로써 인권유린과 용공조작의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관계법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과 생존권을 빼앗아갈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복수노조를 이



연기영 (동국대 교수·법학)

주노총 지도부 검거 등의 강경대처 방침에는 파업사태가 정치투쟁 양상을 띄어 체제부정의 이념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규정하는 대목까지 들어있다. 시위와 파업사태를 이념과 안보문제로 덮어씌우던 군부독재정권 시대와 달린 것이 없다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이제 야당이 날치기 법안의 원천무효를 관철시키기 위한 '대국민 1천만 서명운동'에 들어가면서 순회규탄집회를 갖는 등 노동계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강력한 정치투쟁을 선언한 것이며 대통령선거의 '표'를 의식하고 강도를 높일 기미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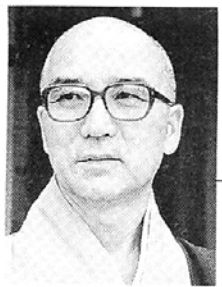
노동·사·정이 이제 더 이상 갈등대립의 형국으로 가는 극한 상황으로 치달지 않기를 우리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화의 문을 열라. 너 나 할 것없이 강경 대응에서 한발짝 물러서서 부처님의 화합과 자비의 정신을 되새겨 보자. 연거푸 세계관을 바탕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슬기로운 지혜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여당부터 깊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여론에 귀를 기울일 때임을 강조한다.

### 화합·공동체의식 절실

노동·사·정이 이제 더 이상 갈등대립의 형국으로 가는 극한 상황으로 치달지 않기를 우리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대화의 문을 열라. 너 나 할 것없이 강경 대응에서 한발짝 물러서서 부처님의 화합과 자비의 정신을 되새겨 보자. 연거푸 세계관을 바탕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슬기로운 지혜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정부·여당부터 깊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여론에 귀를 기울일 때임을 강조한다.

## '참회의 삶'을 살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진철 (통도사 한주)

부처님이 세상을 무시무종(無始無終)이라고 말씀했듯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한 낮과 밤이 존재하고 또 춘하추동(春夏秋冬)이 재미있게도 찾아왔다가 가버리곤 하는 세월속에 움직이며 사는 것을 업이라고 한다.

대개의 종교가 유사하지만 특이 불교는 인과응보의 법칙의 근본인 업을 중요시한다. 평소의 삶속에서 익힌 모든 업은 선업도 있고 악업도 있다. 대개의 사람들은 악업을 참회한다고 하는데...

참회는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것으로 모두에게 건성성불(見性成佛)하여 불국경토(이상세계)를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악업을 제거하고 선업을 축적하다 보면 성불한다. 일상을 사는 우리는 악업을 소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곧 '참회'이다. 수많은 생을 살면서 익힌 모든 악업을 참회하면 본성이 깨닫힌다고 한다.

신앙은 양심을 만들고 교육은 지성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상세계로 가는 길이 되는 것이며 이 길은 '대도무'

## 남을 위해 사는 여유

문(大道無門)이라는 표현으로 문호를 개방하여 우리에게 제시한 멋진 부처님께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무시무종(無始無終)속에 대도무문을 찾아야 이상세계를 만날 수 있으며 그것은 참회를 통해서 철저한 무소유를 만들어야 가능하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어느 분이 평소

에 대도무문을 좌우명같이 늘 휘호로 쓰며 자기를 표시하더니 정축년 신년회에는 유시유종(有始有終)이라고 썼다. 그러한 급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 그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아무튼 이 세상에 화두를 던진 것 같다.

얼마전 뉴욕에 갈 일이 있었다. 그곳은 자연과 생명이 함께 살아가도록 참으로 쾌적했다. 또 서로 존중하고 모두가 성취할 수 있도록 한이기가 다리는 여유있는 모습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공허한 욕망속에 앞뒤없이 뛰어다니며 사는 우리의 현실을 반성하게 했다. 참회없이 앞만 보고 분별없이 경쟁하는 무질서가 누적되어 고치기 어려운 개인의 습관과 사회의 관습을 만든 것 같다.

내인생을 남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유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는 우리 모두의 참회만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動靜悉圓通

宗正目下

## 부처님품안

## 마뜻한가정

一山頂鉢山如來寺

# 萬佛殿起工式

초청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통도사 일산포교당  
정발산 여래사 만불전 기공식을  
교계의 원로대덕 스님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갖고자 합니다.

■ 일시 : 불기 2540년 2월 2일 오후 2시(일요일)  
■ 장소 : 일산신도시 정발산 여래사

가자, 전하러가자, 부처님말씀 전하러가자

—무량수경—

重重無盡處

통도사 일산 포교당 如來寺 萬佛殿 佛事를 위한  
증정 예하의 휘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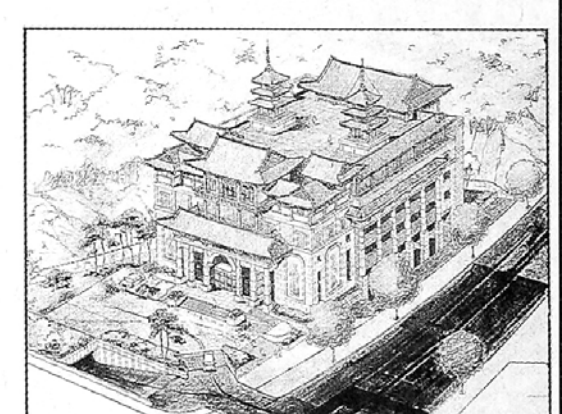
"부처님은 오직 이 일이 있으실  
뿐이시니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시며 중생의 마음에 눈을  
맑게 하시며 온갖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끊게 하시고자  
이땅에 출현 하시었느니라"

— 화엄경 —

大韓佛敎曹溪宗 通度寺 一山布敎堂

頂鉢山如來寺住持頂宇合掌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810번지  
전화 : (0344)905-7766 여래사 (0344)913-7744 원각사  
(02) 575-7766 구룡사



연면적 2,800평 지상 5층, 지하3층